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회의명칭 :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 개최기관 : 과천시의회
- 일 시 : 2014. 10. 20.(월) 14:00 ~ 14:50
- 장 소 : 과천시의회 1층 열린강좌실
- 참석위원 : 6명
 - 이홍천 위원장, 안영 위원, 이수진 위원
 - 정남조 위원, 정주미 위원, 진우곤 위원
 - ※ 간사 : 의사팀장 김영숙
- 제안설명 : 윤미현 의원
- 진행순서
 - 참석자 소개
 -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위원회 기능, 심사기준, 회의진행방법 설명
 - 부위원장 선출
 -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 의 결
- 상정안건 : 공무국외여행 심사
 - 대 상 자 : 문봉선 의장, 이홍천 부의장, 윤미현 의원
 - 여 행 국 : 스페인, 포르투갈
 - 여행 기간 : 2014. 11. 2.(일) ~ 11. 11.(화) / 8박 10일
- 회의결과
 - 부위원장 선출 : 안영 의원
 - 공무국외여행 심사 : 원안가결

회 의 내 용

□ **사회자** 지금부터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남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주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우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심사위원회 기능 및 회의진행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이에 지난 9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에 있는 위촉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회 기능 및 심사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해서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가,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 적정성,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사항 등을 심사합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홍천 위원장께서는 이번 공무국외여행 심사 대상이므로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성현황, 심사위원회 기능 및 회의진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회의진행은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사전에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성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번 회의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계획에 따른 심사로 심사위원회 여러분의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윤미현 의원께서는 이번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의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여행은 2014년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스페인, 포르투갈을 방문할 계획이며 빌바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조도시를 방문하여 구도시와 신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등 도시자원을 발굴하여 장기적인 도시개발전략으로 도시를 새롭게 재생시킨 도시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천은 행정도시로써 명성을 이어 왔으나 최근 청사이전 사항으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조성으로 구도시와 신도시가 공존하는 변화에 예상되는 혼란의 시기에 있습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해 선진도시의 사례를 분석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방향성 수립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하고자 하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여행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일반시민들이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냐? 혹시 외유성 여행 아니냐? 라고 굉장히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으신데, 계획서를 보면 협동조합도 방문하시고 그런데 저는 예전에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여행의 목표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미현 의원 그러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에는 스페인의 메르세 페스티벌 축제 장소 견학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민선6기 들어오면서 신계용 시장님이 과천축제에 대해서 경마장과 연계한 경마축제로 축제에 대한 변경계획을 세워놓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방향설정 하려고 하시는데 이번 저희 견학에는 문화체육과와도 같이 동행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천이라고 하는 정서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용역 맡겨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에는 현장성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은 저희가 가는 기간이 이걸 1년 전에 예상을 했다면 축제를 직접 방문하는 기간으로 넣었을 텐데 저희 의회가 7월 1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올해가 가기 전에 계획을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축제가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날 방문하는 메르세 페스티벌 축제 장소에 관한 견학은 과천시하고 연계해서 축제에 관한 진행사항하고 그 지역에서의 축제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저희가 견학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방문하는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축제기간은 아니고 축제에 대한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넣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축제 장소방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4일 몬드라곤 협동조합 방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천이 굉장히 생협이라든지, 풀뿌리에서도 그렇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도시가 저희 과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적인 부분들을 시민들이 더 참여하는 방향에서 시의회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으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 하는 그런 방향을 탐구해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협동조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몬드라곤 협동조합 방문을 넣었습니다. 그런 과천의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상가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에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촉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몬드라곤 협동조합 방문하는 일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마드리드 시청 도시방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큰 도로를 중간에다 넣고 구도시와 신도시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주민들에 대한 어떤 마찰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개발이 되어야 되나. 그런데 저희가 다른 도시처럼 성냥개비 같은 그런 건물들이 올라가는 주택구조가 아니라 과천의 구조에 맞는, 그래서 향후 미래를 볼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차원의 디자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행계획서 넣게 된 일정이 마드리드 시청 도시행정과 방문입니다.

그리고 11월 9일 합기도행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스포츠교류를 통해서 교류를 이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 차원도 있고 과천 안에서도 보면 경기일보나 인천일보 등에서 농구대회나 마라톤대회 이런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대회를 조금 더 국제적인 행사로 키워가서 경제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스포츠교류를 넣었는데 다행히 여러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합기도협회에서 이번에 행사를 주최하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방문하는 일정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을 통해서 넘어오도록, 네 가지 그런 주제 하에 이런 일정을 짜게 됐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 ○○○ **위원** 여행국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스페인이 주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포르투갈은 경유하는 것만 집어넣으신 겁니까?

□ **윤미현 의원**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40배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을 원래는 주국으로 넣기에도 8박 10일이라고 하는 일정은 정말 빠듯한 일정입니다. 그렇게 스페인 일정을 주로 넣었다가 스포츠교류 쪽으로 하나 더 넣으면 좋겠고 대회가 그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선을 동쪽에서 내려서 포르투갈로, 그래서 역류하는 방향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넣었기 때문에 하루 일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스포츠에 관한 교류현장은 하루면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일정은 관광성이 아니고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에 관한 교류현장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 위원 그렇다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균형적으로 일정을 잡으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스페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포르투갈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행의 개요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채취할 수가 있거든요.

□ 윤미현 의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날짜를 10박, 12박, 14박으로까지 늘려지는 규모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안 부리고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도시와 신도시의 균형발전, 그 다음에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 축제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주로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 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 ○○○ 위원 일정이 참 많이 빠듯하죠? 보니까 처음 계획은 스페인 위주로 짰다가 스포츠교류를 나중에 추가하느라 포르투갈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맞나요?

□ 윤미현 의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동선 중에 11월 9일 행사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가요. 동선을 보시면 같은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아니라 도착해서부터 각 도시를 돌아서 마지막에 포르투갈로 들어올 수 있게 일정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 ○○○ 위원 여기에 보면 투르크메니스탄 국립박물관 초청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윤미현 의원 이것은 8박 10일의 일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별도의 일정입니다. 이 일정은 저희가 의원되기 전에 중앙아시아하고 교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초청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정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8박 10일의 일정에 들어가 있는 행사가 아니라 별개의 초청국에서의 초청행사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참석할 때 여기는 국가에서 비자를 내주시거든요. 비자가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이번에 이홍천 부의장님하고 저를 이쪽에서 초청을 해 주셔서 경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여행이 아니라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사 일정이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 있는 일정이어서 저희가 그쪽에서 연계해서 바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서 추가로 이 설명부분을 넣으신 듯합니다.

□ ○○○ 위원 그러면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추가로 여행을 다니시고 11월 17일 이후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 윤미현 의원 아니요, 11월 17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행사가 11월 12일 있어요. 저희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 비행기 안에서 이틀을 보내는 거여서 연계해서 바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 ○○○ 위원 귀국은 11월 17일 하신다고요?

□ 윤미현 의원 네.

□ 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의원 일곱 분의 예산금액과 이번에 절반 가서 예산 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당히 큰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 ○○○ 위원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요 이런 거 작성한 게 없습니까?

□ 사회자 여행경비는 1인당 의원님들이 각각 2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7명 의원님이 다 올해 안 가시고 올해는 3명 의원님들만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국외여행을 안 가십니다. 저희가 각 1인당 400만 원 범위 내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심의하시기 전에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전국적으로 의원들이 1년에 해외 연수에 쓸 수 있는 돈이 200만 원 이하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2년에 한번 가는 걸로, 1년에 200만 원 쓰는 것을 내년엔 안 가고 올해 한번 몰아주고 내년엔 가시는 분들한테 다음번에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하로 쓰는 것은 200만 원 다 쓰는 게 아니라 여행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고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거기 나라에 맞춰서 200만 원 이하로 쓰게 되는 거죠.

□ ○○○ 위원 200만 원 이하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심사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그런 것도 첨부해서 심사위원들이 투명

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윤미현 의원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여행의 테마에 대한 부분을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면 내용 전해 드리고요. 아마 의회사무과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 산출은 해서 자료를 드릴 겁니다.

혹시 테마나 방문지에 대한 질문이 더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여기 보면 고덕시가지, 바르셀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축제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아래쪽에 11월 16일 도시행정과 방문하는 부분, 그러면 그쪽 관계자가 직접 브리핑해 주시기로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인가요?

□ 사회자 기관이라서 의회사무과에서 바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윤미현 의원 그런 공식적인 일정 하에 저희가 공문 발송하고 현장에서 통역해 주시는 분들 통해서 도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 이런 자료요청들은 저희가 받고 갑니다.

□ ○○○ 위원 여행자 개인별로 업무내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윤미현 의원 네.

□ ○○○ 위원 내용 보면 세 분이 다 똑같은 임무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세 분이 나가시면서 뭔가 분야별로, 개인별로 분담사항을 분류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세 분이 가서서 똑같은 내용으로 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만 보게 하고 나머지 두 분은 여행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분야별로 세 분이 분담하셔서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나중에 종합해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윤미현 의원 아마 문봉선 의장님은 문학 쪽으로 또 예술계열로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저는 미술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라서 저는 도시계획 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이홍천 부의장께서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3개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것도 각자 보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을 더 중점적으로 하나씩 추천하시다 보니까 내용이 들어가져 있고요.

아마 골고루 균형 있게 8박 10일 동안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관광 차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처음에 여기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얼핏 들으면 관광지잖아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관광수입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과

천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쪽으로 견학을 가기로 결정하셨는지 궁금해요.

□ 윤미현 의원 스페인이라는 나라 속에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11월 5일 방문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구겐하임미술관이라고 하는 관광이 있는데요.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항구도시로 굉장히 유명하다가 퇴행사업이 들어오면서 퇴행되면서 거의 폐허나 진배없는 도시로 추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구겐하임미술관이 들어오면서 굉장한 관광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컬처노믹스 효과라고 해서 문화하고 경제가 합쳐지면서 문화적인 것이 상품화되어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저희도 현대미술관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과천은 거의 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어떤 건물이 바늘 하나 꽂을 수 없는 그런 도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예술적인 차원에서의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도시디자인이라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초점으로 맞춰보다 보니까 스페인이라는 도시가 저희 도시하고 벤치마킹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 아닐까. 이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 때문에 제가 일단은 스페인 쪽을 먼저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우디 건축양식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건축양식으로 이 도시는 살아남아져 있는 곳이고요. 투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축제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문화적인 면에서 접목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관광지를 선택해서 갔다면 더 다른 도시들도 많이 있었습시다. 그런데 스페인이라는 도시는 저희 과천이라는 도시 특성하고 가장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 위원 예술적인 면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셨다는 건가요?

□ 윤미현 의원 미래적인, 장기적인 방향을 봤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 ○○○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는 예술도시는 아니잖아요. 현대미술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쪽은 아니고 행정도시로 좀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갈현동 쪽에 들어오면 어떤 방향으로 설계돼서 들어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말씀하시는 거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 윤미현 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제안 설명 드렸던 것에도 보면 청사이전 사항으로, 그러니까 과천이 저희 의지로 선택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획 속에서 있었던 행정도시인데 세종시로 옮기고 난 다음에 저

회는 행정도시로써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봐야 되고요.

관광자원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마장이라든지 서울대공원, 현대미술관, 국립과학관. 그런데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하고 1시간 정도밖에 거리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숙박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 쪽하고는 다른 형태의 관광성을 띠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건물들이 IT 지식계층으로 오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온다든지, 공장이 들어올 수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업적인 목적의 건물들이 들어오기에는 땅이 좁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상생효과를 보고 가야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페인이라는 도시를 말씀드렸고요. 관광이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자원을 활용하되 도시경관디자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초점으로 했기 때문에 스페인을 선택했습니다.

□ ○○○ 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시들 보면 예술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시나 군포만 해도 있고요. 과천시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시민회관이 예술회관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술회관은 음악, 무용, 미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회관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회관 하나만 가지고 시민이 활용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예술의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윤미현 의원 우리 위원께서 문학 쪽으로 예술 쪽으로 실무를 하시고 그래서 관심의 초점일 것 같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각 지자체마다 뭔가 축제라는 방향도 그렇고 각 지자체가 중구난방 식으로 난립되어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갔다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개념이라기보다는 트렌드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간이라는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리축제라고 하는 부분도 예술적인 부분을 바깥에 있는 공간을 활용한 축제였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길 가던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전통 문화적인 부분을 살려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 안의 특정, 저희 시민들만 참여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제적인 축제로 승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물적인 차원은 장기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계획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 보다는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 와서 그런 내용들을 소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그런 방향설정이 사실 시급하거든요. 과천시민이 7만여 명 정도 되는데 달랑 시민회관 연극 하나 하려면 방음장치 제대로 다 되어야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미술에 대한 공간도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까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술회관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과천시가 어떻게 관광수입을 올리고 문화 축제를 성대하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번 국외견학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미래발전적인 자료가 수집돼서 정말 시민의 가슴에 와 닿는 문화적인 공간이라든지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미현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현장 가서 반영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나눠드린 자료 보시고 추가로 나누실 의견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당사자분들 안 계실 때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자 아까 궁금하셨던 여행경비는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렸는데요. 지방의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하는 사항이며, 항공료는 항공운임 정액 표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일정에 따라 여비를 산정했는데 400만 원이 초과된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위원님들 심의의결서 받으시면 성함 쓰시고 확인에 가부를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의결과 다섯 분 위원님들이 모두 찬성하셔서 공무국외여행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